



《금오좌적》, 175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금부義禁府의 기능과 활동,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들이 신임 관료의 신고식인 면신례 과정에서 계첩을 제작해 동료들과 나누어 가졌던 모습과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금오계첩》을 모아 전시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가 《금오계첩》이라는 기록물을 통해 의금부와 관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 전시를 도와주신 분들

전시총괄	송인호 임현빈	유물대여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기획	김중은 나선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연령	장훈진 박지영	재단법인 한국고회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호림박물관
전시자료	김진욱 김호 윤진영	이희지연구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유물촬영	최인호	계명대학교 동신도서관	라이프치히그라시엔속사박물관
유물대여	김문택 이현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일암컬렉션, 5C재일은행
보존처리	임주희		
행정지원	김나은 홍수경 최혜영 유지훈		
제작설치	이새로홍아미		
영상제작	이피블리		
유물운송	고라아트		

### 관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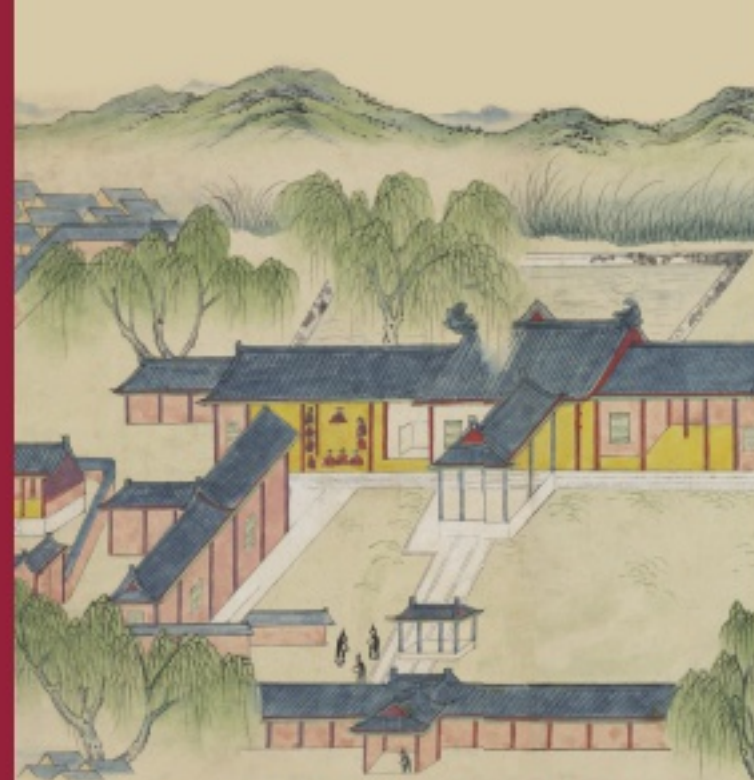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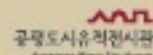
관람시간 평일 9:00~18:00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 오시는 길

지하철	종각역 3-1번 출구 (1호선)
버스	조계사 정류장 (01-201) 151, 162, 172, 401, 406, 704, 7022 공평/종각 정류장 (01-888) 종로01, 종로02 종로1가 정류장 (01-012) 101, 103,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70, 601, 720, 721, 741, 7212 종로2가 정류장 (01-013) 101, 103, 143, 150, 160, 201, 260, 262, 270, 271, 273, 370, 470, 501, 720, 721, 741, 7212, 9301
주차	벤티로올리스빌딩 지하 3-7층
문의	120(다산콜센터), 02-724-0135
주소	03161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벤티로올리스빌딩 지하 1층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기획전



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The Album Commemorating  
the Gathering with  
Names and Paintings

2019  
10.18.fri  
—  
2020  
2.23.sun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

# 의금부 금오계첩

I-SEOUL U  
이와나의 서울



### 전시를 열며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정비사업에서 출토된 도시유적을 원위치에 전면보존한 현장박물관입니다. 전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첫 기획전 '의금부 금오계첩'을 개최합니다. 전시관 길 건너편 견평방평坊에 자리잡은 조선시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 의금부와 전평방

전평방(典評房)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중부 8방의 하나로 의금부, 전의감 및 순화궁을 비롯한 여러 관아들과 궁가들이 위치한 도성내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또한 운봉가는 전평방을 아우른 한양의 대표적인 상징가로 중심에는 종루(鐘樓)가 있었고, 의금부 맞은편에는 전옥서(典獄署)가 위치하였다. 의금부 뒤편으로는 금부후동(禁府後洞)으로 불리는 동네가 자리잡았다. 조선 초기부터 의금부가 이 터에 자리잡은 후 같은 자리를 지켜왔으며, 근대에 들어 한성재판소, 대심원(大審院)을 거쳐 일제강점기에는 종로경찰서, 해방 후에는 신신백화점과 SC제일은행 등으로 사용되며 오랜 장소성을 유지해왔다.

전의감: 조선시대 궁중에 쓰이는 의관을 조제하고 악재를 제거하던 관아  
 수진궁: 조선시대 불적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왕자와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공주를 제사하던 사당  
 순화궁: 조선시대 한종의 후궁 경연(慶宴) 집사의 사당  
 종루: 조선시대 도성을 여닫고 인명과 화를 알리는 종을 달았던 누각  
 전옥서: 조선시대 감옥과 죄수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 의금부의 역할과 활동

1414년부터 1894년까지 약 480년에 걸쳐 운영된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特別司法機關)으로 왕명(王命)을 받아 죄인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관아였다. 심문부터 형률 적용, 형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여 왕부(王府)라고 불렸으며, 왕의 교지(交趾詔)를 받아 죄인을 가둔다 해서 의금부의 옥을 조옥(調獄)이라고 하였다. 형조가 일반 잡범에 대한 처벌(治罪)을 담당할 반면 의금부는 주로 양반관료의 범죄를 취급하는 양반재판소 역할을 하여 왕권의 확립과 강화에 기여하고 조선왕조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반역 및 강상(強相)에 관련된 사건을 추궁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치재판소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금부는 각종 비해결된 사건이나 중대 사건의 최종판결기관 역할을 맡았다.



『경국대輿圖』, 17세기



『경주제』 좌책, 176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주민京國漫』, 17세기 초-19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금부도사 최근 고신 교지, 1799년

## 『금오계첩』과 면신례

『금오계첩』은 신임 도사가 치른 면신례와 관련이 있다. 면신례는 '신장을 면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신임 도사가 선배들을 대접하며 행한 일종의 신고식이자 통과의례였다. 면신례의 목적은 선후배 도사들 간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혹한 벌칙을 강요하여 고초를 겪게 하는 폐단도 있었다. 면신례가 있을 때 신임 도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그림 한 점과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는 의금부의 청사를 그렸고, 그 한 부분에 도사들이 모임을 갖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신임 도사는 인원수에 맞추어 10부의 『금오계첩』을 만들었다. 먼저 선배 도사들에게 하나씩 증명하고 자신도 하나를 가졌다. 『금오계첩』은 만남의 사실을 기록한 기념물의 기능을 했다. 의금부를 거쳐 간 수많은 도사들이 면신례를 행할 때마다 『금오계첩』을 준비했다. 현재 여러 점의 『금오계첩』이 전하는 것은 면신례의 관행 때문이었다.



『금오현록』, 면신일문합 규정

### 산수도풍그림



『금오계첩』, 이윤조 후손 재제작, 19세기 초반  
 (좌)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중)호림박물관 소장

### 동일문



『금오계첩』, 1799년  
 (좌)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우)계명대학교 동신도서관 소장

### 면신례(면신)

#### ■ 17세기 - 계첩의 등장과 표현의 단순화



『금오계첩』, 1697년

#### ■ 18세기 - 새로운 부사법과 사실성의 강화



『금오계첩』, 1739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 ■ 19세기 - 공간의 확대와 도시화



『금오계첩』, 1803년